

중간연차 간호사의 동료 간 갈등경험

구남이¹, 권수혜²

¹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전인간호과학 연구소 연구원, ²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간연차 간호사의 동료 간 갈등경험을 기술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Methods

본 연구의 참여자는 B광역시 소재 2개 종합병원에서 3년 이상 9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총 8명의 일반 간호사였으며, 면담 시 주요 질문은 “중간연차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경험한 동료 간 갈등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로 개방적이고 비 구조화된 일대일 면담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동년 12월까지로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은 순환적으로 자료의 포화 시점까지 진행되었다.

Results

중간연차 간호사의 동료 간 갈등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4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이는 ‘역태움으로 느껴지는 불편한 관계’, ‘위아래로 치이는 버거운 신세’, ‘현재를 버티기 위한 자구책’, ‘체념과 기대가 공존하는 일터’의 주제모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수년간 중간연차 간호사로 병동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동료 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후임과 선임 간호사로부터 양방향으로 경험하는 갈등이기도 했다. 때로 후임 신규간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역태움으로 느껴질 정도의 불편한 관계를 경험하기도 했고, 후임과 선임 간호사의 중간에서 위아래로 치이는 힘겨운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스스로의 긍정 마인드와 동기들의 도움이 절실한 자구책이 되어 현재를 버티나갈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갈등의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어엿이 자립하는 신규 후임간호사를 바라볼 때 큰 보람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고 있었다.

Table 1. 중간연차 간호사의 동료 간 갈등경험

Theme Cluster	Theme
역태움으로 느껴지는 불편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임의 위치다꺼리로 배가되는 부담감 가르침이 태움이 되어버린 답답한 현실 신규라는 타이틀 앞에 눈치를 보는 나
위아래로 치이는 버거운 신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놓고 무시하는 후임에 대한 모멸감 부당한 선임의 비난에 멍든 마음
현재를 버티기 위한 자구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입장을 되돌아 보는 반성 긍정 마인드로의 전환 마음의 조력자, 동기
체념과 기대가 공존하는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의 무력감 나를 벗어나 자립하는 신규에 대한 보람

Conclusions

본 연구는 중간연차 간호사의 주관적 관점에서 동료 간 갈등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였다. 후임과 선임 사이에서 샌드위치 세대인 중간연차 간호사의 다양한 갈등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 간, 동료 간 갈등을 관리 및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 심리지원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Keyword

Generation gap, Nurse, Psychological conflict, Qualitative research